

<2018년 2월 18일 주일말씀>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로 만드는 것이 그리도 큰일이다

본 문 에베소서 4장 15-1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선생이 시대 십자가 기간 10년 동안
제일 핵심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겠습니다.

<영적인 근본의 말씀>입니다.

주제는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로 만드는 것이
그리도 큰일이다.’ 입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이제 <시대 십자가 10년의 기간>이 끝나고,
<희망과 감사와 기쁨과 부활의 때>가 왔습니다!

10년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, 가장 핵심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.
바로 ‘내 머리를 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머리로 만든 것’ 입니다.

예전에 만든 머리로는 <부활의 때>에 쓸 수가 없습니다.

부활 후에는 시대가 달라지니, ‘이전 머리’로는 안 됩니다.

<더 차원 높은 영적 세계의 머리>를 써야 됩니다.

그래서 10년 동안, 다시 시대에 맞게 내 머리를 또 만들었습니다.

차원 높여 새로 만들기가 자연성전 만들듯 힘들었습니다.

◆ 더 차원 높여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>로 만들어 놓으면

-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하며,

- 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.

◆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>로 만들었기에,

그동안 ‘매일 새롭게 차원 높여 시대 말씀’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.

안 만들었으면, ‘과거에 했던 말씀’만 계속 했을 것입니다.

기성은 안 만들어서 ‘예수님 때 한 말’만 그대로 합니다.

◆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

새 시대를 만났어도, 시대에 따라 계속 차원 높여 만들어야 됩니다.

마음과 행실을 주께 일체 시키는 것도 한 번만 한다고 됩니까?

늘 할 때마다 일체 시켜야 됩니다.

한 번 씻었다고 계속 깨끗합니까?

때마다 계속 씻어야 깨끗합니다.

<주께 마음과 행실을 일체 시키는 것>도 그러합니다.

<마음과 행실을 주께 일체 시킨 시간>만 ‘같이 사는 시간’입니다.

이와 같이 <자기 머리>도

시대에 따라 계속 차원 높여 만들어야 됩니다.

<자기 뇌>를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뇌로 만든 것’ 이
그리도 큼니다.

- ◆ 섭리사도 자꾸 차원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.
시대는 차원 높여 가는데, ‘다시 머리를 안 만든 자들’ 이 있습니다.
이들은 20~30년 전 그대로 합니다.

이때에 맞게 성령과 주와 함께 머리를 다시 만들어야
성령과 주가 주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합니다.

다시 말합니다.

부활 후에는 <영적 세계의 머리>를 써야 됩니다.

<육적 세계의 머리>로는 시대가 다르니 안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머리>, 곧 <뇌>는 ‘기계’ 와 같습니다.

컴퓨터나 각종 기계도 ‘헤드’ 가 제대로 만들어져야
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입력하고 작동합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
- ◆ <머리>를 만들었나, 안 만들었나, 보면 압니다.

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도

<자기 뇌 기계>를 만들었느냐, 안 만들었느냐에 따라서
달리 받아들입니다.

만들었으면 ‘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차원’ 대로 받아들이고,
안 만들었으면 ‘그 차원’ 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

<삼위의 뜻>에 따라 ‘뇌 기계’를 만들어야
<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차원>대로 받아 전하고 행하게 됩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잘 들어요.

“<사고와 생각>을 만들어라.

그러지 않으면

<주의 말씀>을 들어도 뇌에 입력이 안 되고 스쳐 간다.

-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머리다.
- 이 시대 말씀의 머리다.
- 이 시대 잠언의 머리다.
- 새 노래 찬양의 머리다.
- 기도의 머리다.
- 계시의 머리다.

모두 <자기 머리>를 새 집을 짓듯 ‘새로’ 만들어야 된다.

<시대>에 따라 ‘머리’를 만들지 않으면,
그 시대에 살아도 ‘그 시대의 일’을 못 하게 된다.

<기계>를 ‘새로’ 만들어야 ‘새로운 일’을 하고 언듯이,
<뇌, 생각, 머리>를 ‘새로’ 만들어야 ‘새로운 일’을 해서
그 시대의 것을 얻게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<하나님의 자연성전>을 만들듯이,
<자기 뇌, 머리, 사고, 생각>을 ‘새로’ 만들어야 됩니다.

<머리>를 만든 대로 ‘말씀’을 받아들이고,
<머리>를 만든 대로 ‘쓰고 행하게’ 됩니다.

- ◆ <월명동>도 ‘본래 구조와 틀’ 을 없애고

‘하나님의 구상’ 대로 만들었듯이,

<자기 머리, 사고, 생각>도 ‘자기 중심’ 을 없애고
오직 ‘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기’ 입니다.

그래야 그때마다 <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>을 그대로 받아 행합니다.

- ◆ <뇌, 머리>는 ‘생각’ 만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

자연성전 만들듯이 ‘하나하나 자신이 행함’ 으로 만들어집니다.

마치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기계로 생산할 것을 계속 만들어 내듯,
하나하나 행함으로 <머리>를 만들어 놓으면
계속해서 시대의 일을 하며 각종 것들을 생산하게 됩니다.

- ◆ 시대 말씀을 줬을 때 **행하면** ‘새 시대 머리로 만든 것’ 이고,
행하지 않으면 ‘새 시대 머리로 안 만든 것’ 입니다.

말씀을 듣고 ‘생각’ 까지는 하지만,
결국 행하지 못하여 ‘생산’ 을 못 합니다.

- ◆ <머리>를 얼마만큼 만들었느냐, 이것이 ‘그 사람의 차원’ 입니다.

- ◆ 구교인 천주교, 개신기독교
다 ‘그 시대 머리’ 로 만들어서 씁니다.

<새 시대>에서 살려면, **다시 만들어야**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기계마다, 장비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.

자동차와 자전거가 다르고, 포클레인과 팽이가 다릅니다.

모두 ‘만든 대로’ 만 씁니다.

<뇌, 머리>는 ‘각종 장비나 기계’와 같습니다.

역시 ‘만든 대로’ 만 씁니다.

- ◆ 선생은 여기서 10년 동안

<새로운 뇌 기계, 새로운 머리>로 만들었습니다.

그동안 이미 <새롭게 만든 머리>를 쓰면서,

<시대 말씀>을 내보내며 행했습니다.

마치 ‘우주선’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.

- ◆ <새로운 뇌 기계, 새로운 머리>로 만드는 것은

마치 ‘신형 열차, 신형 비행기’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.

<새 시대>에는 ‘신형 머리’로 행해야 됩니다.

<새 시대>는 ‘머리싸움’입니다.

<지도자>가 머리가 둔하면, <전체>가 다 둔하게 됩니다.

자동차도, 열차도, 비행기도

계속 ‘새로운 엔진’을 장착하고 ‘새롭게’ 하듯

<머리>도 ‘새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기’입니다.

- ◆ <지난 10년의 기간>은

섭리사 시대 신부들의 머리를 새로 만드는 기회의 기간이었습니다.

<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머리를 만든 자들>은

삼위와 시대 말씀과 일체 되어 쓰고 있고,

<만들지 못한 자들>은

섭리사 안에서도 구시대 옛날 것만 중심하고 있습니다.

어서 새롭게 만들어, 영적으로 새롭게 작동하게 해야 됩니다.

- ◆ <자연성전>도 시대에 따라 ‘새롭게’ 만들었기에,
시대에 따라 합당하게 쓰고 있습니다.

<섭리사 각 교회들>도 시대에 따라 ‘새롭게’ 하여
차원 높여 부활됐습니다.

이전과는 ‘아예 다른 형상’ 이 되었습니다.

각 나라마다, 지역마다

계속해서 만족하게 ‘새롭게’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

- ◆ <자기 뇌, 마음, 생각>은 ‘하나님의 전, 하나님의 집’ 입니다.

<자기 몸>도 ‘하나님의 전, 하나님의 집’ 입니다.

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.

<집>이 좋아야 ‘마음’ 도 ‘몸’ 도 편하고 좋습니다.

- ◆ <기계>도 ‘겉’ 만 좋고 ‘기능’ 이 보통이면, 별로입니다.

<사람>도 그러합니다.

<스마트폰>은 작아도 ‘기능이 다양’ 하니까 그리도 좋습니다.

<자기 뇌 스마트폰>도 작지만,

각종 기능을 하며 각종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

육의 세계, 영의 세계에서 다 사용하는

<뇌 스마트폰>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

〈뇌 스마트폰〉이 ‘세상 최고의 기계’ 입니다.

- ◆ 세상의 각종 기계가 아무리 좋다 해도
그 기계로 ‘삼위일체’ 와 통할 수 있습니까?

천국의 ‘천인, 천사들’ 과 통할 수 있습니까? - 못 합니다.
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〉와 수시로 통해야 됩니다.

이것은 오직 ‘뇌, 머리’ 로 합니다.

바로 ‘뇌 스마트폰’ 입니다.

- ◆ 저마다 〈뇌〉라는 ‘폰(phone)’ 을 가지고 있지만
 - ‘일반 전화기 차원의 폰’ 을 갖고 있는 자도 있고,
 - ‘조금 발전된 차원의 폰’ 을 갖고 있는 자도 있고,
 - ‘최신형 스마트폰’ 을 갖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.
- ◆ 〈뇌〉라는 ‘폰’ 으로 ‘영의 세계’ 까지 통하면 엄청납니다.

그런데 ‘차원 낮은 잡신’ 과 통하기도 합니다.

이는 ‘세상에서 흔히 사람들과 통하는 정도’ 입니다.

어떤 사람들은 ‘사탄’ 이나 통하게 자기 머리를 만들고 삽니다.

어떤 사람들은 ‘세상만 사랑하는 머리’ 로 만들어 놓습니다.

그런 머리는 ‘하나님과 주’ 가 쓰지 못합니다.

〈삼위와 주와 통하는 머리〉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.

- ◆ 어떤 뇌는 ‘말씀을 듣기’ 는 합니다.
그러나 ‘행하기’ 는 못 합니다.
이는 ‘수신’ 은 되는데 ‘송신’ 은 안 되는 폰과 같습니다.

<수신>과 <송신>이 다 돼야 하듯,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자기 영>에게 유익이 되고,
<자기 영>이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.

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‘자기 영 만들기’입니다.
그래야 ‘신적 차원의 삶’ 이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계속해서 말씀할 테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<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곳>이 ‘땅의 하나님의 처소’입니다.
곧 ‘시대 에덴동산’입니다.
거기서 ‘시대의 뜻’을 펴 나가십니다.

- ◆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‘예수님’을 보내서 역사를 펴셨습니다.
이 역사는 <구약>이 아니고 <신약의 세계>입니다.

<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>이
‘그 시대 땅의 하나님의 처소’이며 ‘고향’입니다.

<따르는 자들>에게는 ‘제2의 고향’입니다.

- ◆ <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펴는 곳>이
‘땅의 하나님의 처소’이며 ‘고향’입니다.

이 시대도 <사명자를 보낸 곳>이
‘땅의 삼위의 처소’이며 ‘고향’입니다.

<따르는 자들>에게는 ‘제2의 고향, 영의 고향’입니다.
다른 말로 하면 ‘영의 처소’이며 ‘영적인 생활지’입니다.

- ◆ <전국>은 ‘영의 본향’입니다.
- ◆ <자기 처소, 생활지>는 ‘제2의 고향’과 같습니다.
<환경>이 ‘제2의 자기’입니다. 정이 들어야 삽니다.
- ◆ <신앙의 배경>도 ‘제2의 고향’입니다. 역시 정이 들어야 삽니다.
- ◆ <자기 육신>은 ‘제2의 고향’과 같습니다.
<자기 육신>을 배경으로 <영>이 크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.
- ◆ 저마다 <자기 육신>을 만들고,
<자기 육이 거할 곳>을 만들어야 됩니다.

그래야 거기에 정이 들어서 잘 살게 되고,
<영>도 귀히 만들어서 편히 쓰게 됩니다.

이는 마치 <집>을 쓰기 좋게 만들어야
<육>이 편하고 좋은 것과 같습니다.
- ◆ 자기를 만드는 대로 편하고 좋습니다.
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평생 씁니다.

먼저 ‘뇌, 머리 만들기’입니다.
<뇌, 머리>를 안 만들면, ‘생각’은 해도 ‘생산’은 못 합니다.
고로 그 차원대로만 살다가 끝납니다.

- ◆ 지난 10년 동안 매일 차원 높여 ‘시대 말씀’을 주면서,
<뇌, 머리를 다시 만들 시간>을 쫓습니다.

그때가 ‘자기 머리를 새로 만드는 때’였습니다.

이제 ‘새로운 때’가 왔습니다.

<머리>를 새롭게 만들어야 <차원 높은 새 시대>를 따라잡니다.

- ◆ <스마트폰>도 ‘성능’에 따라서 화면도 잘 잡히고 잘 보입니다.

<영계의 화면>도, <삼위와 주의 생각의 화면>도

‘뇌 스마트폰의 성능’에 따라 잘 잡히고 보입니다.

<영계의 화면>과 <삼위의 주의 생각의 화면>이 잘 보여야
모르는 것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.

고로 <뇌, 머리>를 ‘삼위’에 맞게

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능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.

- ◆ <뇌>에서 생각나야 행하게 되니,
<뇌, 머리>를 만드는 대로만 행하게 됩니다.

<펜>도 없으면 글씨 한 자를 못 쓰듯,

<뇌, 머리>를 **안 만들면** 그 분야는 하나도 못 합니다.

만들어 놓으면,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.

- ◆ <생각>을 잘해야 됩니다. <생각할 때> 잘해야 됩니다.
항상 <뇌, 머리>에서 ‘문제’와 ‘사고’를 냅니다.
고로 뇌, 머리를 온전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.
그러면 ‘문제’도 없고 ‘사고’도 없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스마트폰끼리는 서로 통하지요?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?
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

이와 같이 <삼위의 생각>과 똑같이 만들어야 ‘삼위’와 통합니다.

- ◆ <삼위의 생각>과 똑같이 맞으면 ‘삼위’와 통하고,
그때 삼위는 ‘응답’ 하십니다.

그렇지 않으면 ‘응답’이 안 옵니다.

- ◆ 그때마다 <하나님의 뜻>과 맞으면, 성령과 함께 ‘응답’ 하십니다.
안 맞으면, ‘응답’이 안 옵니다.

- ◆ 기도할 때도 <삼위의 생각과 맞는 기도>를 하면 ‘응답’이 옵니다.
그리고 그 기도가 ‘이루어지게’ 해 주십니다.

안 맞으면, ‘응답’도 없고 ‘이루어지지’도 않습니다.

- ◆ 사람도 <자기 마음>에 맞으면 대답하고,
안 맞으면 이유를 대고 대답하지 않습니다.

- ◆ 주 머리와 맞추기입니다. 삼위의 머리와 맞추기입니다.
이렇게 <뇌, 머리를 만든 자>는 ‘삼위와 주’와 통합니다.

◆ <지상에서 삼위와 최고로 통하는 존재>는

바로 ‘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인간’입니다.

더 자세히 쪼개어 보면 ‘인간의 뇌’입니다. ‘머리’입니다.

저마다 <하나님의 말씀>을 듣고 자기 책임을 다하여,
시대에 따라 <자기 뇌, 머리>를 ‘재창조’ 해야 됩니다.

자연성전 만들듯 해야 됩니다.

◆ 이 시대는 <육>으로는 ‘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시대’ 이고,
<영>으로는 ‘뇌 스마트폰으로 삼위와 주와 대화하는 시대’입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

◎ 마지막으로 ‘시 한 편’ 읊어 주고 마치겠습니다. (다음 장에 시 있음)

정이 들었다

정이 들어서
내가 이곳에서
긴긴 세월을 전했다

내 집은 아니지만
따뜻하고,
하나님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,
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,
시대 사랑하는 자들과
매일 사연을 주고받으며,
사랑과 내 할 일에
정이 들었다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
대화를 주고받고
기도하며
생명을 살리는 데 정이 들어
10년의 해가 지는지 몰랐다

이제
넓은 세상
해 뜨는 데로 가노라

2018년 2월